

<2018년 4월 22일 주일말씀>

약속한 것을 지금 행하신다

본 문 로마서 4장 20-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1. 하나님과 성령님은 <약속한 것>을 ‘지금’ 행하신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은 <약속한 것>을 ‘약속을 받은 자들’을 통해 행하시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 기쁨도 희망도 없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스스로 막기도 한다.
3.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구약 때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루고 있었는데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막기까지 했

다.

4. 깨닫고 주와 함께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만들었다.
5.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이루고 있는데도 모르는 자들은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막기까지 했다. 그러나 <주와 함께 행한 자들>은 육도 영도 ‘이상세계’를 이루고 ‘축복’을 받았다.
6. <자기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행하고 계신다. 이를 모르면, 기쁨과 희망으로 행하지 못하니,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다.
7. <지금>이 중하다.
8. 하나님은 주와 함께 <약속한 것>을 매일 행하고 계신다.
9. <주가 시대의 죄를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성령께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약속을 지금 매일 행하고 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주>가 하나님과 성령님께 약속했으니, 그 행하심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가 이를 증거해야, <따르는 자들>도 모두 알 수 있다.

11.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주’ 다. <주를 증거하는 자>는 ‘본 자’ 다. ‘아는 자’ 다. 또한 ‘두 증인’ 이다.

<전환>

12. 하나님은 성령과 주와 함께 <저마다 자기가 과거에 아쉽게 행한 것>을 충분히 만족하게 행하도록 다시 ‘시간’ 을 주고 ‘기회’ 를 주어 자기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

13. 가령 누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아쉽게 하고 끝냈다고 하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이를 아시고, 다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고, 만족하게 해 줬다는 것이다. 이같이 해 줘도 모르면, 기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없다.

14. 자기는 <배구 선수>가 인데, ‘탁구’ 만 하고 끝나면 만족이 없고 아쉬워 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기회를 줘서 배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함으로 자기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어 만족하게 해 준다.

15. 지금은 <말>로만 증거하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 실제로 <자기 재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도록 ‘시간’ 과 ‘기회’ 를 주어 마음껏 행하게 해 줘야 된다.

16. <자기 재능과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자

기 능력껏 행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알리게 되고, 그리 함으로 만족하게 된다.

17.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노래할 시간’을 주어, 실제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해 줘야 된다.

18. <설교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설교할 시간’을 주어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인정하고 알게 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주를 통해 실제로 이같이 행하고 계신다.

19. 지금은 <실제로 행하면서 보여 주는 시대>다.

20. <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실제로 행하고 보여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고로 <병든 자>가 있으면, 실제로 고쳐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나타내며 성경을 이룬다.

21. <주>는 실제로 행하고 보여 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증거한다.

22. <본 자>가 증거해야 된다. <다른 자들>은 알 수가 없다.

23. <약수를 먹고 고침 받은 자들>도 본인이 증거해야 된다.

24. <주>는 아픈 자와 병든 자, 각종으로 고통받은 자들을 고쳐 주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

를 좇는 모든 자들>도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증거해야 된다.

25. <말>로만 증거하지 말고, 실제로 전도하고 관리하고 각종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하셨다.” 해야 된다.

26. <약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하셨으나, 이를 <실제로 겪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행했다고 하며 육적으로 흐른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이들을 쓰지 않는다.

<전환>

27. 하나님은 매일 주와 더불어 <약속한 것>을 행하고 계신다.

28. 하나님과 성령님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매일 주와 함께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29.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지금, 매일 이루고 계신다. <주>를 중심하여 ‘부활된 자들’과 함께 이루고 계신다.

30. <그동안 아쉽게 하고 끝난 것>이 있으면, 아쉬움 없이 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어 행하게 하시니, 이를 진정 깨닫고 제대로 잘해야 된다.

31.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토록 아쉬워하며 다시 하기를 원해서 ‘기회’를 줬는데, 왜 이를 모르고 감격하며 행하지 못 하느냐.” 하셨다.
32. 과거에 그토록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있느냐. 지금, 네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도 주도 기회를 주시며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신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라.